
碩士學位論文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效率性에 관한 研究

- 第 7 次 改正案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永 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商業教育專攻

李 鍾 和

1998年 8月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效率性에 관한 研究

- 第 7 次 改正案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永 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商業教育專攻

提出者 李 鍾 和



李鍾和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抄 錄 >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效率性에 관한 研究

— 第 7 次 改正案을 中心으로 —

李 鍾 和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商業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永 春

본 연구는 상업교육과 관련한 근본적 개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효율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 국민 소득의 증가와 국민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업계 고등학교가 침체 내지 쇠퇴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상업계 고등학교가 스스로 환경을 바꾸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업계 고등학교가 이러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개방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업교육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시행될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目 次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과 範圍	2
II. 商業教育의 變化趨勢	4
1. 商業教育 概念의 變化	4
2. 需要者의 要求 變化	10
3. 産業界의 要求 變化	14
III.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變遷過程	20
1. 教授要日期	20
2. 第 1 次 教育課程	21
3. 第 2 次 教育課程	23
4. 第 3 次 教育課程	25
5. 第 4 次 教育課程	28
6. 第 5 次 教育課程	30
7. 第 6 次 教育課程	33
IV. 第 7 次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에 관한 考察	37
1. 第 7 次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의 背景	37
2. 第 7 次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의 內容	44

V. 第 7 次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效率性 提高 方案·····	52
1. 商業教育의 認識 轉換 ·····	52
2. 繼續教育의 機會賦與 ·····	52
3. 專門教科의 效率的 運營 및 學校名稱의 變更·····	55
4. 教育課程의 現場 適應性 提高 ·····	55
5. 資格檢定制度的 改編·····	56
6. 教員資格表示制度의 改善·····	57
7. 教科書開發體制의 改善 ·····	58
VI. 結 論 ·····	59
參 考 文 獻 ·····	62
Abstract ·····	67



表 目 次

표 1. 상업중학 실업과 교수요목	21
표 2. 제 1 차 교육과정의 교과내용 및 단위배당	22
표 3. 제 2 차 교육과정의 교과편제 및 단위배당	24
표 4. 제 3 차 교육과정의 교과편제 및 단위배당	27
표 5. 제 4 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	30
표 6. 제 5 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	33
표 7. 제 6 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	36
표 8. 경기도 상업계 고등학교 학과별 현황	42
표 9. 외국의 상업계 고등학교 학과편제	42
표 10. 제 7 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목 편제	45
표 11. 제 7 차 교육과정의 교과내용	48



그림 目 次

그림 1. 연구의 범위	3
그림 2. 평생교육과 연계된 학제	54

I. 序 論

1. 研究目的

산업 구조의 변화, 국민 소득의 증가와 국민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업계 고등학교가 침체 내지 쇠퇴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상업계 고등학교가 스스로 환경을 바꾸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업계 고등학교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자유경쟁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 상품이든, 인력 상품이든, 이것을 공급하는 자는 수요상황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실업계 고등학교가 수요자에게 매력이 없는 이유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 없어서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지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담당했던 직업 교육적 기능이 전문대학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입 수능고사 응시율과 진학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가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여학생 덕분이다. 상업계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의 절대 다수는 여학생이다. 그러나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가정 내에서 아들·딸에 대한 교육적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 여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상업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이미 축소 조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의 학력수준 저하도 심각한 문제이다. 상업교육이 담당해 온 초급 사무인력의 양성기능은 이제 정보산업의 발달에 비례해서 약화되고 있으며, 중등학교 수준에서 상업 교육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변신이 절실하게 요

구되는 시점이다.

학교는 학생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 수요자인 학생이 외면하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학교의 설치, 유지를 담당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따라가기 위한 시도를 할 수 밖에 없음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직업교육의 변화가 심하다고 해서 직업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직업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활동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단서를 보다 빨리 발견하고, 그에 적합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개방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로 특징지워지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혁신적인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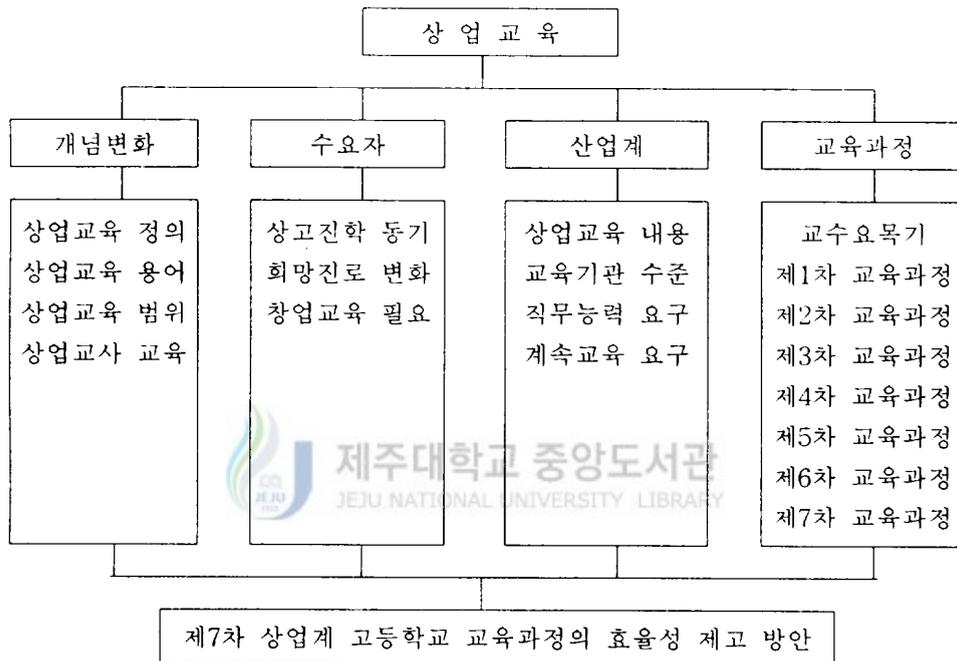
현재 우리 나라 상업교육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제6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업교육과 관련한 근본적 개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효율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研究方法과 範圍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면에서는 문헌 자료, 특히 상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위하여, Hitel과 천리안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석·박사 학위논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선행연구물들을 검색하고, 여기서 선정·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과 고등학교 교육과정(I, II)를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상업교육의 개념변화, 수요자의 요구변화, 산업계의 요구변화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7차 개정에 이르는 동안의 변천 과정별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연구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내용을 고찰한 다음,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국한 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의 범위



II. 商業教育의 變化 趨勢

1. 商業教育 概念의 變化

1) 商業教育 定義의 變化

학문적인 입장에서 상업교육을 논할 때는 그 논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분야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으면서도 학문적인 목적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한다. 상업교육에 대한 해석은 개인적인 주관점이나 철학에 따라 다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의 진술은 상업교육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Herrick은 “상업교육이란 비즈니스맨에게 그의 직업을 위해 직접, 간접으로 준비를 시키는 교수의 형태”라고 하였고,¹⁾ Lomax는 “상업교육은 근본적으로 부의 획득, 보존 및 지출과 관계가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하였다.²⁾

그리고 Nichols는 “상업교육이란 각 주어진 수준에서 교육의 일반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을 하는 한편 비즈니스직에 들어가려는 사람 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현재 고용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시키는 것을 그것의 일차적 목표로 가지고 있는 훈련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³⁾ 미국의 전국경력상업교사

1) C. A. Herrick(1904), *The meaning and practice of commercial education*, p.6, quoted in Nanassy, L. C. et al.(1979),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Indiana : Bobbs-Merrill Co. Inc., p.2.

2) P. S. Lomax(1928), *Commercial teaching problems*, New York : Prentice-Hall, p.7, quoted in Nanassy, L. C. et al.(1979),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Indiana : Bobbs-Merrill Co. Inc., p.2.

3) F. G. Nichols(1933), *Commercial education in high school*, quoted in Nanassy L. C. et al.(1979),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Indiana : Bobbs-Merrill Co. Inc., p.2.

회의는 “상업교육이란 비즈니스직을 위한 직업적 준비, 또는 상업 교사직을 위한 직업적, 전문적 준비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편 모든 시민과 소비자가 비즈니스와 경제 환경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와 활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정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의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정의의를 종합하여 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상업교육이란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산자로서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이해 및 태도를 제공하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⁵⁾ 구체적으로 ① 중등학교 수준에서 교수되는 직업교육으로서의 상업교육, ② 초·중·고 수준에서 제공되는 비즈니스세계 진입을 위한 일반교육으로서의 상업교육, ③ 대학 수준에서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등에 대한 교육, ④ 상업교사 양성을 위한 상업교사 교육과 현직 상업교사에 대한 연수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상업교육은 중등학교 수준 이하에서 교수되는 일반 교육적 상업교육과 직업 교육적 상업교육을 의미한다.

2) 商業教育 用語의 變化

상업교육을 지칭하는 명칭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유통교육(Distributive Education : DE), 마케팅 및 유통교육(Marketing and Distributive Education : MDE), 마케팅교육(Marketing Education : ME), 상업 및 사무교육(Business and Office Education : BOE)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변형되기도 하였지만,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는 역시, 상업교육(Business Education : BE)이다.

상업교육에 관한 표현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초창기에는 Commercial

4) L. V. Douglas(1968), *Business education*, The center of education, Inc., New York, p.253.

5) L. C. Nanassy., D. R. Malsbary., & H. A. Tonne(1979),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Indiana : Bobbs-merrill Co. Inc., p.2.

Education이 사용되었으나 대상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Business Education으로 변화되었다.⁶⁾ 이 과정에서 Distributive Education, Marketing and Distributive Education, Marketing Education, Business and Office Education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변형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직업교육법은 상업교육에 관련된 용어 정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초창기에 미연방 당국이 DE와 BE를 구별하려고 노력한 것은 DE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비해 BE에 대해서는 거의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상 DE는 BE의 한 국면이므로 법적인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3년 미국의 직업교육법에서는 BO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DE라는 용어는 1935년에 처음으로 Paul Nystrom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1970년대에 오면서 개념상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MDE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유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1984년에 미국직업교육협회(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 AVA)에서 MDE를 ME로 개칭하기로 결의하였다. 마케팅 교육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을 위해서 개인을 준비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상업교육이라는 용어는 마케팅교육을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상업교육(Business Education)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Business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이다. 대개 상업교육에 관련된 외국문헌에서의 쓰임을 망라해 볼 때 상업, 경영, 사업, 기업 등과 같은 우리말 표현이 문맥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이들 표현 어느 하나로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 A. F. Schrag & R. P. Poland(1987), *A system for teaching business teacher*, McGraw-hill, p.251.

3) 商業教育 範圍의 變化

상업학이 현대에 와서 경영학으로 확대, 발전되었다는 관점에서 상업학의 변천 과정은 경영학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에서 체계화된 상업학이 일본으로 전파되고, 이것이 다시 우리 나라에 이전되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립된 학문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경영관리론의 발달과 그 영향으로 우리 나라 상업학은 주로 경영학의 마케팅론이나 무역학의 무역실무론에 흡수, 포함되어 다루어져 오고 있다.

상업은 농업, 공업 등과 같은 산업의 한 유형으로, 다른 산업이 가치조성, 즉 개화의 생산 활동인데 비해, 상업은 개화의 시간적, 장소적 분리를 극복시켜 줌으로써 개화의 이용도를 높이는 가치 증식이 그 본질이다.⁷⁾

다시 말해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상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제적 분리를 극복하여 줌으로써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간의 유통을 원활히 해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상업이라고 하면, 매매업이 중심이 되는 본원적 상업과 금융, 운송, 보관, 보험 등과 같은 보조적 상업, 그리고 국제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업까지 포함된다.

상업교육의 관점에서 상업이란 단순히 본원적인 상업인 매매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상업의 범주에 속하는 금융, 증권, 보험, 보관, 운송 등은 물론, 서비스업과 경영관리적인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서비스란 판매되기 위해 제공되는 활동, 편의, 또는 만족 등에 대한 총칭이다. 이러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의 상업과는 차원을 달리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상업의 규모나 업종,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상업의 활동에는 경영과 사무라고 하는 두 개의 공통된 부문이 있다. 상업의 한 부문을 이루는 경영 및 사무는 농업, 공업, 수산업 등과 같은 여타 산업에도 반드시 존재한다. 서비스, 경영, 사무 부문은 고유의 상업은 아니지만, 상업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7) 武市春男·平井潔(1976), 「商業教育論」, 東京: 國元書房, p.381.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상업은 물론 보조적 상업, 경영, 사무 등에 관련된 일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찾는다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상업 교육을 Commercial Education 보다 Business Education 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商業教師 教育의 變化

상업교사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인하여, 상업교육과는 본래 목적인 유능한 상업 교사양성이라고 하는 기능의 수행이 사실상 거의 봉쇄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첫째 방법은 학과 명칭은 살리면서 상업교육과에서 배우는 비즈니스에 관한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는 신입사원 모집광고의 응시자격에 사범계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원서접수조차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상업교육과 졸업생의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방법은 교육부의 요구대로 일반학과로의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에서 상업교육과에 대해 일반학과로 전환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되는 '96학년도 이후에는 더욱 상업교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이 주요한 근거이다. 실제로 상업교사에 대한 수요 감소는 임용 고시에서의 선발 인원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초기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반발로 일반학과로 전환된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95~'96년 사이에 여러 대학에서 학부제 도입을 계기로 상업교육과가 경영학부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일반학과로 전환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상업디자인이나 관광경영 분야의 전문과목은 「상업」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아닌 디자인이나 관광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게 내주어야 하므로, 그만큼 상업교사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정보처리교과에서 경험한 문제이다. '71년 제3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정보처리 분야의 과목을 초기에는 상업교사가 전산 과목 연수

를 받고 담당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에 「전자계산」 표시과목을 독립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대학 상업교육과에서 상업교사 양성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그 누구도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상업교육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임용고시에서 전자계산은 다수의 인원을 선발하는데 비해, 이제 상업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현직 교사 조차 과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비서 분야 과목이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상업교사 자격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당국에서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상업교사 자격의 세분화는 현직 또는 예비 상업교사에게 불리함은 물론이고, 일선 상업계 고등학교 경영자에게도 교사 충원과 배치상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 현실적인 실익이 없다. 상업은 교사자격이 세분화되어 있는 농업이나 공업 분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상업계 고등학교에 단일과인 「상업과」 외에 「무역과」, 「회계과」, 「정보처리과」 등이 추가되었다. 학과가 세분되었지만, 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과목 종류와 내용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당연히 교사 자격을 세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제5차 개정에서도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나, 교사자격을 세분하지는 않았다. 제6차 개정에서는 기존의 4개과 이외에 「비서과」, 「관광경영과」, 「상업디자인과」, 「기타학과」 등이 추가되었다.

원래 관광은 가사·실업 계열에, 디자인은 공업계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기도 하다. 전자계산에 이어서, 이미 관광, 디자인은 자격증이 세분되었다. 관광, 디자인 등은 상업계 고등학교에 있던 기존의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등과는 교과 성격이나 대학의 관련학과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세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추가된 「비서과」를 비롯하여, 「상업」, 「회계」, 「무역」 등은 구태여 학문적으로 구별하자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지만, 중등학교 수준에서 직업교육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학문적 분류를 매우 중시하는 대학에서조차도 최근의 동향은 유사 학과간의
통폐합의 당위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안은 대학의 비서
학과에 상업교직과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바 있다.

2. 需要者의 要求 變化

1) 尙高 進學動機의 變化

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의 진학동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단지 선택의
기준은 중학교 성적과 지역내에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성
비율 뿐이다. 과거처럼 대학에 진학할 경제력이 없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자발
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연합고사 성적에 따른 강제배분 성격이 강하다. 이
러한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흥미가 부족하고, 실습에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연령은 같고, 학생 자신이나 그들의 학부모가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도 비슷한
중3 졸업생에게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전혀 다른 교육체제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매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에도 대학입학과 취업을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면, 대다수는 대학진학을 선택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이것이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구매력을 가진 유효수요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업교육은 직업교육이고, 직업교육 중에서도 상업에 관련된 직업적 준비를 위
한 교육이다. 목적이 분명한 교육이다. 목적이 분명한 교육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시켜야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계 고등학
교생의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할 때, 앞으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내
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업계 고등학교를 완성교

육기관으로 가정한 현재의 교육과정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보통의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일반교양과 전문대학(경우에 따라서는 4년제 대학의 산업관련 분야)에 진학해서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2원적 시스템을 하루 아침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온 학습자들의 욕구나 희망이 과거와 달라졌으면, 가르치는 내용은 최대한 학습자들의 욕구나 희망에 근접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商高生 希望進路의 變化

상업계 고등학교생의 취업률이 해마다 큰 차이로 떨어지고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은 지난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00%에 가까웠지만 '90년대 들어 떨어지기 시작해서, '94년에는 83%, '95년에는 75.2%를 기록했다.⁸⁾ 일선 상업계 고등학교들에 따르면 불황과 기업 인사정책의 변화로 상업계 고등학교생 취업의 대응을 이뤘던 금융권 등이 문호를 큰 폭으로 좁힘에 따라 '96년 취업률이 전년에 비해 20~30% 가량 낮아졌다.⁹⁾

취업이 안된 상업계 고등학교생의 경우 기능학원에 다니거나 뒤늦게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등 진로 선택에 갈등을 겪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정규직 사원 대신 '인력회사'를 통해 파견 근무 인력을 조달하는 형편이어서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선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취업을 포기하고 전문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모아 뒤늦게 진학반을 구성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생 자신들은 취업이 안되면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전문대라도 진학하기를 희망하면서, 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

8) 국민일보, "상고도 시대변신/취업난 대처 다양한 첨단공부," 1996년 7월 1일, p.27.

9) 한겨레신문, "상업계 고교 취직 힘드네," 1996년 10월 21일, p.26.

다.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취업률 하락과 대학 진학률 증가이다. 그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흔히 「완성교육」이다. 혹은 「종국교육」이다. 라는 말을 해왔다.

교육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상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제도교육으로서의 마지막」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은 이와 다르다.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일반 교육적 기능과 직업 교육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일반 교육적 기능보다는 직업 교육적 기능에 매우 큰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국민소득이나 의식 수준의 변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일반 교육적 기능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대학입학 정원, 특히 전문대학의 문호가 넓어지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5년도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95학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상업계 고등학교교사나 산업계에서는 「무분별한 고학력 풍조」라고 하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남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이다. 이것은 교육개혁안에서 추구하는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곧 국가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다.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수준에 적합하게 교육수준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10) 한국일보, "실업고생 대학진학 붐," 1995년 8월 24일, p.23.

3) 就業 代案으로서의 創業教育

비즈니스 기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를 고용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진로선택 기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업교육은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창업능력이 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창업교육은 창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총칭한다. 창업교육의 주요 목표는 ① 진로 계획에 도움을 주고, ②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③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운 직업적 능력을 자신의 사업에 응용하도록 하며, ④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⑤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기회를 제공하고, ⑥ 비즈니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의적 능력인 창의성을 키워주는 데 있다.

창업이란 자본, 사업아이디어, 종업원, 시설 등을 구비하여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3대 요소는 ① 사업 아이디어, ② 자본, ③ 창업자(entrepreneur) 등이다. 창업자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창업자가 지닌 재능, 지식, 경험 등과 같은 능력의 총합을 의미한다. 종래의 직업교육은 저능한(less-able)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 취업수준의 훈련(entry-level training)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직업교과를 담당하는 많은 교사들이 일부 사람만이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며, 나머지는 피고용자로서의 진로 기회만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일반인들의 선입관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3년이래 창업교육이 미국 교육부의 정책에 포함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교육부문에서 자영농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타 부문의 직업교육에서는 자영업 창업을 위한 능력 개발에 소홀한 편이다.

3. 産業界의 要求 變化

1) 商業教育 內容의 變化

상업교육은 일에 관한 교육인 동시에, 일을 위한 교육이다. 일(work)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상업교육에서 주요 대상이 되는 일은 상업 및 경영에 관련된 것이다. 이를 묶어서 표현하자면, 비즈니스라고 칭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업교육을 사전적인 의미로 직역하면 Commercial Education 이지만, Business Educ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산업은 농업, 공업, 상업 등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리고 직업분류도 산업분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UN 통계국이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표준직업분류표의 발전 과정을 보면, 표준무역(산업)분류표를 시발점으로 하여 제정되어 온 사실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직업교육도 이러한 분류를 따라서 농업교육, 공업교육, 상업교육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수·해양교육, 가정교육, 간호보건교육 등이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

여기서 직업교육이란 '개인이 대학졸업 이하의 자격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에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해, 판단력,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고 또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개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일의 현장에서 능력을 개발하는 전체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직업교육은 개인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데 비해, 직업훈련은 개인을 직업에 적합 시키려하는 면이 더 강하다는 데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의 영역별 발전 과정을 보면, 산업의 발전 추세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산업 발전 초기에는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교육이 직업교육의 대표 주자인 셈이었다. 이어서 공업의 발전에 따라 공업교육의 붐이 일어나고, 상업을 비롯한 3차 산업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업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일어난다. 오늘날과 같은 소비자 우위의 시장 환경 하에서

상업 및 경영 활동의 중심은 유통과 정보에 있으므로, 현대의 상업교육 내용도 유통과 정보관리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화 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오늘날에는 상업교육의 내용이 정보산업 교육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실제로 상업계 고교들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를 개편하는 등 산업과 직업수요의 변화에 다양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회계과는 거의 사라졌고, 상업과는 정보처리과, 경영정보과, 사무자동화과 등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이 같은 변신은 고학력화 추세와 금융기관 등의 급속한 사무자동화 때문에 인력수요가 줄어 졸업생의 취업이 과거처럼 쉽지 않은데도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들의 학과 다양화 추세는 전문대 인기학과의 교육과정과 일부 겹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직업교육 전문기관들간의 전면적인 경쟁과 구도 재편도 예고되고 있다.

2) 商業教育機關 水準의 變化

상업교육을 비롯한 직업교육에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수준의 변화이다. 종래에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완성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산업의 고도화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이제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치가 매우 약화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실업계, 전문대학, 나아가 4년제 대학이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아직 양적인 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변화의 방향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이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이라고 알려진 대만이나 독일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만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¹¹⁾

11) 한국교육신문, “직업교육 재검토 하자,” 1992년 9월 23일, p.4.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7,00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대신 고등교육 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해 왔다. 국민소득의 증가는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한 상관이 있고,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직업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 중·고교 과정에서부터 취업반과 인문반을 분리해서 공부하게 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다 받고 취업을 선택한 젊은이가 처음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인력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다. 응용력이든지 의외의 사태에 대한 판단력과 적용 능력이 훨씬 빠르고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 비록 출발기에는 기능적으로 약간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길게 보면 인문계로 훈련된 사람들이 훨씬 낫다는 의견이다. 이런 의견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빠르게 진전되는 정보화시대에 적용할 수 있고 평생교육의 수용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개발 유지하는 것이 현대의 시민교육에는 필요하다.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서비스 상품에 대한 고객의 욕구가 변하고 있다. 이를 물리적으로 돌려놓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계획에도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 필요한 시대이다. 1960년대에 Drucker는 “직업교육이 갖는 최악의 면은 그것이 ‘2류의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나쁜 학생들만 직업학교로 보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¹²⁾

따라서 오늘의 직업교육은 기술자(technologist) 양성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또한 직업교육은 일반교육, 즉 진정한 뜻에서 교양교육이 되어서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12) P. T. Drucker(1969), 「단절의 시대(The age of discontinuity)」, 서남원 역(1976), pp.385~386.

3) 職務能力 要求의 變化

상업교육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수능력보다는 기초 개념과 용어의 이해 등과 같은 기초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지식사회에서의 직업상 선택기회는 무수히 많으나, 학교에서 무수한 진로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모두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의 학습 방법이다. 즉 특정한 기능이 아니고, 보편적인 기능을 얻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에 있어서 지식이 참된 자본이며, 부를 낳는 중심적인 자원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를 지식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식사회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학습방법을 배우도록 요구한다. 가르침을 받고서 비로소 터득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배워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 지식 사회에서 교육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르치는 동시에 덕을 쌓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장차 살아가고 일하고 성과를 올리게 될 현실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학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업원으로서 조직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모든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과를 올리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을 터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자기의 생각을 구두나 서면으로 간결·단순·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 남과 함께 일하는 능력, 그리고 조직 속에서 자신의 포부를 실현시키고 뭔가의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위한 기초적 능력이다.

비즈니스에 관한 기초적 내용을 충분히 익히게 되면 보다 진보된 단계의 지식도 흡수하기가 쉽고 모든 활동의 지속성도 약속 할 수 있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장기간 상업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교육내용의 전반에 걸쳐서 기초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원래 실무성이나 현실성에 입각해야 한다. 상업교육에서 실무성이나 현실성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경우 상업교육의 가치가 적게 된다. 이것은 학생의 이해가 비교적 곤란한 원리나 법칙을 구체적,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연구하여 원리와 법칙에서 실무에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과 유리된 실무가 아니라 응용력을 기르는 기초 학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상업교육이 갖는 특성이다.

학교교육이 사회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산업계의 비판은 늘 있어왔다. 산업계 고등학교 교육도 어느 정도는 산업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은 중요한 것이었다가 내일이면 쓸모 없는 것이 될 정도로 수명이 짧은 것까지 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서는 보다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학교에서는 당장 필요한 기능을 안 가르치느냐 하는 산업계의 비판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대표적인 예로 「타자」를 지적한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타자」라는 교과목이 명칭이 사라졌다. 교과 명칭은 사라지더라도,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키보딩」기능의 중요성은 존재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아래한글」, 「엑셀」 등과 같은 응용소프트웨어를 가르치기 이전에 종전의 「타자」 교과와 거의 차이가 없는 「키보딩」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산업계의 요구대로 학교가 따라갈 수는 없다하더라도, 학교는 산업계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교가 산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학교 시설과 실습기자재의 낙후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초가집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학교시설도 가정이나 사회에 비하면 고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춥고, 덥고, 불편하지만, 졸업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는 곳에 돈을 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교육의 성과는 시간적으로 지체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

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에 소홀했던 것이다.

4) 繼續教育 必要性 增加

전통적인 교육제도에서는 각 학교가 스스로를 종착점으로 여기고 있다. 학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출석하기만 하면 교육은 끝난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는 교육의 끝이 없다.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은 몇 번이고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육체 노동에 필요한 기술은 서서히 변하지만 지식 사회의 지식은 그 본래의 성격상 급속히 변화해 간다. 어떤 기술자라도 학교를 졸업한 뒤 몇 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그의 지식을 갱신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교육은 이미 학교의 것만이 아니다. 모든 사회기관이 교사가 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기업·정부기관 등이 소속원의 교육 훈련에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교육, 평생교육, 성인교육, 또는 계속교육이니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들 용어는 보는 관점이나 강조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직업교육으로서 완성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 기술과 지식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평생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한 가지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평생동안 살아갈 수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끊임없는 재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전생애를 통한 인간적, 사회적, 직업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차원에서도 직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직업인에 대한 교육 기회 부여는 교육 기관과 산업 체제간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산학협동교육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Ⅲ.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變遷過程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¹³⁾ 특히 교육과정은 산업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개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서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教授要日期

교수요목기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1954년 4월 20일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인 '문교부령 제35호'가 공포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광복직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이 없었으며, 학교의 자율적 또는 지역적 노력에 의하여 교수요목을 만들고 교재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 상업학교는 미군정 시대인 1945년 11월 23일 단선형 학제의 실업고등학교로 발족되었으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에서 전학과의 3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중학교 또는 실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꿀 수 있어 별도의 상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없었다.

교수요목이란 각 교과별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열거하는 것으로서, 각

13) 교육과정을 개정한 연도에 기준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요목기 : 1945. 8 ~ 1954. 4

제1차 교육과정 : 1954. 4 ~ 1963. 2

제2차 교육과정 : 1963. 3 ~ 1974. 12

제3차 교육과정 : 1974. 12 ~ 1981. 12

제4차 교육과정 : 1981. 12 ~ 1988. 3

제5차 교육과정 : 1988. 3 ~ 1992. 10

제6차 교육과정 : 1992. 10 ~ 1997. 12 : 1996학년도부터 적용.

제7차 교육과정 : 1997. 12 ~ : 2002학년도부터 적용.

분야에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여 심화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은 이를 제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나 제목을 열거하는데 불과하였다. 교수요목은 교수요지, 교수방침, 교수상의 주의, 교수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수사항(교과내용)은 학년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구분하여 편제되었다.

한편 당시의 상업중학 실업과 교수요목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중학 실업과 교수요목

과 목	대 상 학 년	주 당 시 간	총 시 간
상업 경제	초급중학 1, 2, 3학년	2	74
	중 학 4, 5, 6학년	3	111
부기 회계	초급중학 1, 2, 3학년	2	74
	고급중학 1, 2, 3학년	3	111
주 산	초급중학 1, 2, 3학년	2	74
	중 학 4, 5, 6학년	1	37
상업 수학	중 학 4, 5학년	1	74
무 역 론	중 학 6학년	2	74
경영경제학	중 학 6학년	2	74
상 품 학	중 학 6학년	2	74
통 계 학	중 학 6학년	2	74
법 규 학	중 학 6학년	2	74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 (상업계열), 1995, p.44.

2. 第 1 次 教育課程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이후부터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교육과정 개정령이 공포되기까지의 교과중심 교육과정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1954년 4월 20일 개정된 교육과정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교육적 실

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1958년 6월 5일 '문교부령 제76호'의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표'에 의하여 교과구성과 시간배당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량을 연단위로 신축성 있게 편제하였으며, 실업고등학교에는 실업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교과를 과하도록 하였다. 특히 실업교과는 필수와 선택을 합하여 총 이수시간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때에서야 비로소 상업계 고등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내용 및 단위배당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제1차 교육과정의 교과내용 및 단위배당

과 목	총 시 간	교 과 내 용
상업 경제	210~215(6~9)	상업 대의와 각종 업무, 배급, 기구, 상업 정책과 재정, 화폐 금융, 경영, 경제에 관한 연구
상업 부기	100~140(3~4)	복식 부기의 원리를 중심으로 부기의 기초 지식
공업 부기	70~105(2~3)	원가 계산을 토대로 장부의 연구
은행 부기	70~105(2~3)	상업 부기의 기초 위에 은행 부기장의 기능
주 산	210~315(6~9)	한국 특유의 계산 능력 실습을 통한 기능
상업 연습	105~140(3~4)	타자, 속기, 인서, 상업문, 상업 실천
경제 지리	70~105(2~3)	상업 경제에 관한 지리적 연구
상 품 학	70~105(2~3)	상품의 규격, 품질, 등급, 상품 감정과 생산과정 연구
상업 법규	70~105(2~3)	상법, 회사법, 수표 및 어음법의 이해
무 역	70~105(2~3)	무역에 관한 기초 지식과 그 실천
회 계 학	70~105(2~3)	회계 제도 계리법, 재무의 여러 가지 표의 연구
상업 수학	140~105(4~6)	상업 관습에 의하여 상업 계산 방법 및 수리적 연마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 (상업계열), 1995, p.45.

3. 第 2 次 教育課程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부터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개정·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의 경험중심 교육과정 시기를 말한다.

당시의 교육이념은 5·16 군사정변 이후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민족중흥과 교육'이라는 목표 하에 주체성,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한 실용주의 철학에 의한 경험을 중시하였다.

특히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단위제¹⁴⁾를 채택하여 시간계획의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상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국가와 민족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고 장차 직업에 종사할 유능한 생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업교과목의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업 전문교과목의 비중을 크게 높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목표 달성은 수업량의 50% 이상을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한 실업교과 학습활동에 충당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제정방침, 교과편제 및 단위배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教育目標

- (1) 상업 및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킨다.
 - (2)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상업의 기능과 상업에 있어서의 경영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실업인으로서의 신념과 자각을 가지게 한다.
 - (3) 일반 경제 생활을 합리적, 능률적으로 영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 14) 단위제는 학년제에 대비되는 것으로, 1단위라 함은 1학기 동안 주당 1시간의 수업량을 말한다. 따라서 제2차 교육과정에서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3년간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를 204~222단위로 하고, 전문교과(필수 및 선택)는 102~120단위로 하여 이수단위의 폭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2) 教育課程 制定方針

제2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제정방침과 학교 운영의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실과 중심의 교육과정
- (2) 초·중·고등학교간의 연계성
- (3) 실용성의 중시
- (4) 지역성의 강조
- (5) 단위제 채택과 시간 계획의 융통성

3) 教科編制 및 單位配當

표 3. 제2차 교육과정의 교과편제 및 단위배당

필수 과 목	단위 수	선택 과 목	단위 수
상업대요	8~12	은행부기	4~6
경영대요	4~8	공업부기	4~6
상업법규	4~8	상품학	4~6
경제지리	4~6	통계조사	4~6
상업부기	6~10	상업문	4~6
회계학	4~8	상업영어	4~6
상업수학	4~6	상업미술	4~6
주산	12~18	상업서예	2~6
상업실천	8~16	무역실무	4~6
타자	4~12	속기	4~6
		기타	
		*선택 교과목은 5과목 이상	
이수단위	58~124	이수단위	38~60
이수단위합계		102 ~ 120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 (상업계열), 1995, p.47.

4. 第 3 次 教育課程

제3차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에 의하여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부터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개정·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의 학문중심 교육과정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3년 앞당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함께 묶어 전면 개편하였다. 그 이유로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목표달성에 따르는 산업화 과정에서 실업교육의 진흥과 새로운 직업기술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새로운 정보화 산업의 도래와 함께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자계산일반, 코볼, 포트란, 어셈블리 등의 교과목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의 단위배당 기준에 있어서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3년간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를 216~234단위로 확대하고, 전문교과(필수 및 선택)도 102~156단위로 확대하여 이수단위의 폭에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선택에 따라 집중적인 학습활동의 재량권을 일선학교에 부여하고, 장차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과정별 계열화의 가능성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상업계 고등학교에 전문교육을 강화, 실험실습을 강화, 직업교육을 심화, 컴퓨터 교육을 심화, 산학협동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한편 제3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제정방침, 교과편제 및 단위배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教育目標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장차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창의성을 길러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진취적인 태도와 자질을 함양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 (1) 상업, 경영 관리 및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킨다.
- (2) 경제 생활에 있어서 상업의 기능과 산업 사회에 있어서 경영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직업인으로서 국민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3)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항상 창의성을 발휘하고 일상의 경제 생활을 합리적, 능률적으로 영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教育課程 制定方針

제3차 교육과정의 제정에 따른 중요 방침과 특색은, 산업기술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색과 운영상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 (1) 보통 교과와 구성과 그 내용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구성
- (2) 실업 교육 진흥 및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업의 심화
- (3) 정보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의 심화 발전
- (4) 직업 진로의 지도의 강화

3) 教科編制 및 單位配當

표 4. 제3차 교육과정의 교과편제 및 단위배당

필수 과목	단위 수	선택 과목	단위 수
상업 개요	4 ~ 6	부기 II	4 ~ 8
경영 관리	4 ~ 6	공업 부기	6 ~ 8
상업 법규	4 ~ 6	은행 부기	4 ~ 6
부기 I	6 ~ 8	세무 회계	4 ~ 6
기업 회계	2 ~ 4	판매 관리	6 ~ 8
상업 계산	12~18	상품	4 ~ 6
한글 타자	4 ~ 8	경제 지리	4 ~ 6
전자 계산 일반	4 ~ 6	무역 업무	4 ~ 6
상업 실천	4 ~ 10	통계 조사	4 ~ 8
		코볼 프로그래밍	8 ~ 10
		포트란 프로그래밍	4 ~ 6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4 ~ 6
		경영 수학	4 ~ 6
		문서 사무	4 ~ 6
		사무 관리	4 ~ 6
		속기	4 ~ 6
		상업 영어	6 ~ 12
		상업 미술	2 ~ 6
		상업 서예	2 ~ 4
		영문 타자	4 ~ 6
		전자 계산 실무	8 ~ 18
		기타 과목	
이수 단위	50 ~ 70	이수 단위	32 ~ 104
이수단위합계	102 ~ 154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 (상업계열), 1995, p.51.

5. 第 4 次 教育課程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개정되어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8-7호'로 초·중·고 교육과정이 개정되기까지의 인간 중심 전인교육에 역점을 둔 시기를 말한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탐색되었던 학과별 전문화 과정이 '교육법 시행령 제111조 3항'에 따라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로 나누어 고도 산업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체계를 가지게 하였다.

또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의 분량을 조정하여 전체 이수단위를 전 계열 동일하게 204~216단위로 축소하고, 전문교과(필수 및 선택)도 82~122단위로 축소하였으며, 전문교과목도 24과목으로 통합·조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과거의 단선편제에서 전공학과별로 구분하였는데,¹⁵⁾ 이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보통교육과 상업에 관한 기초적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상업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기능과 기술을 연마하게 하여 각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고도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었다.

한편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 학과별 목표,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教育目標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상업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15)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목 편제는 각 학과(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에 따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구분하여 편제하였다.

- (1)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 (2) 산업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3) 상업 및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신념과 긍지를 지닌 직업인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2) 學科別 目標

- (1) 상업과 : 상업 활동 전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상업 및 경영 실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한다.
- (2) 회계과 : 경리, 회계 사무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경리, 회계 사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한다.
- (3) 무역과 : 무역 업무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무역 업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한다.
- (4) 정보처리과 : 전자 계산기의 이용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정보 처리 업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한다.



3) 專門教科日 編制 및 單位配當

표 5. 제4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

학과	필수 과 목	선택 과 목
상업과	상업대요, 경영대요, 상업부기, 상업계산, 상업실천, 타자, 전자계산일반	상업법규, 상업계산, 타자, 상업실천, 상품, 부기회계, 공업부기, 세무회계, 무역업무, 상업영어, 경제지리, 문서사무, 경영통계, 자료처리, 상업미술, 상업서예, 마케팅, 전자계산실무, 기타과목
회계과	상업대요, 경영대요, 상업부기, 상업계산, 부기회계, 공업부기, 전자계산일반	
무역과	상업대요, 경영대요, 상업부기, 무역업무, 상업영어, 타자, 전자계산일반	
정보처리과	상업대요, 경영대요, 상업부기,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타자, 전자계산일반	
이수단위	40 ~ 64	
이수단위합계	82 ~ 122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 (상업계열), 1995, p.54.

6. 第 5 次 教育課程

제5차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8-7호'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부터 1992년 10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1992-19호'로 개정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학문적 발전과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추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제4차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운영면에서 개정의 기본방향은 기초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편제 및 그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교과목의 단위 수에 대하여 단위배당 폭을 없애고 기준단위를 기초로 하여 각급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교과목의 기준단위는 각 교과목의 단위 중 최소단위에 근거하여 기준단위를 책정하였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3년간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204~216단위로 하고, 전문교과(필수 및 선택)도 82~122단위로 이수단위에 폭을 두어 계열별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 비중을 달리해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과별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은 38~64단위, 전문교과의 선택과목은 44~84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문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단위는 12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 학과별 목표,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教育日標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길러, 산업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1)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 (2) 산업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 (3) 상업 및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신념과 긍지를 지닌 직업인으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2) 學科別 目標

- (1) 상업과 : 상업 활동 전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상업 및 경영 실무에 종사할 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 (2) 회계과 : 회계 사무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경리, 회계 사무에 종사할 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 (3) 무역과 : 무역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무역 업무에 종사할 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 (4) 정보 처리과 : 전자계산기의 이용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정보 처리 업무에 종사할 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3) 專門教科目 編制 및 單位配當

표 6. 제5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

구분 학과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상업과	상업대요, 경영대요 상업부기, 타 자 상업계산, 상업실천 전자계산일반	상업법규, 상업계산 마케팅, 상업실천 상업미술, 부기회계 공업부기, 세무회계 무역업무, 상업영어 경제지리, 문서사무 자료처리, 경영통계 상업서예, 타 자 프로그래밍, 상품 전자계산기실무 기타과목
회계과	상업대요, 경영대요 상업부기, 상업계산 부기회계, 공업부기 전자계산일반	
무역과	상업대요, 경영대요 상업부기, 무역업무 상업영어, 타 자 전자계산일반	
정보처리과	상업대요, 경영대요 상업부기, 자료처리 프로그래밍, 타 자 전자계산일반	
이수단위	38 ~ 64	
이수단위합계	82 ~ 122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 (상업계열), 1995, p.58.

7. 第 6 次 教育課程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1992-19호'에 의해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을 말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과서 중심 학교교육을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으로

전환하여 의도된 교육과 실현된 교육을 접근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5차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산업사회의 변화와 학문적 발전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선택의 폭 확대, 학습부담 경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정 원칙 및 개정 중점에 의거 제6차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법 제155조'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방향과 단위학교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지침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도 교육청별, 학교별로 결정권을 위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켰다.

둘째,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영역이 확대되고 아울러 직업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4개 전공학과¹⁶⁾ 외에 관광경영과, 상업디자인과, 비서과 및 기타학과를 확대·개설하여 관광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경영정보처리 및 사무자동화의 증가 추세 및 전문 비서직 수요의 증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공학과의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제6차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상업에 관한 전공선택 과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전공필수 과목과 전공선택 과목의 구분을 최소화하였다. 즉 계열별 필수 전문교과만 교육부가 2~4과목으로 지정하고, 학과별 필수 전문교과는 시·도가, 학과별 선택 전문교과는 각 학교가 선택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의 전공과목 중 상업대요를 비롯한 상업실천, 문서사무, 공업부기, 부가회계, 프로그래밍 과목을 상업경제, 상업실무, 문서실무, 원가회계, 기업회계, 프로그래밍Ⅱ로 그 교과목의 명칭과 내용을 학문적 발달수준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국제경제, 유통관리일반, 상업디자인일반, 그래픽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비서실무, 비서일반, 속기, 사무자동화일

16) 기존에 설치된 학과로는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가 있다. 이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설치되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서 일부 보완된 것이다.

반, 상업실습 과목을 새로 개발하여 전공과목의 선택 폭을 확대함으로써, 전공학과
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능과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편성과 운영은 총 204이수
단위 중에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는 82단위 이상으로 하고, 상업계열의 경우 전
공필수 과목은 전공학과를 불문하고 상업경제, 상업부기, 전자계산일반의 3개 과
목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전문교과는 전부 전공선택 과목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
문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단위는 3년간 12단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학
기당 이수과목 수를 18~20개 과목에서 12과목 내외로 축소하였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 학과별 목표,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教育目標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고,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
게 한다.

- (1)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 (2) 산업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 (3) 상업 및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신념과 긍지를 지닌 직업인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2) 學科別 目標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각 전공 학과별 목표를 삭제하고, 신설 학과의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¹⁷⁾ 이는 그 목표의 설정 유용성과 변화하는 교육 내용

및 사회적 요구 수준과, 학교 교육 목적 및 목표와의 괴리로 발생하는 오류를 적게 하는 데 있다.

3) 專門教科日 編制 및 單位配當

표 7. 제6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

과 목	비 고	과 목	비 고
상업경제	상업대요 개칭	무역업무	
상업실습	신설, 확대 적용	상업영어	
경영대요		국제경제	신설
상업부기		프로그래밍II	프로그래밍 개칭
전자계산일반	타계열과 통합 교과	자료처리	
상업법규		전자계산실무	전자계산기 실무 개칭
상업계산		경영통계	
상업실무	상업실천 개칭 및 통합	상업디자인일반	신설
마케팅		상업미술	
상품		그래픽디자인	신설
유통관리일반	신설	컴퓨터그래픽	신설
문서실무	상업서예, 타자, 문서사무 등 통합	비서일반	신설
기업회계	부기회계 개칭	비서실무	신설
원가회계	공업부기 개칭	속기	신설
세무회계		사무자동화일반	신설
이 수 단 위		82 ~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 (상업계열), 1995, pp.169~170.

- 17) 기존학과 :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
신설학과 :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비서과, 기타학과

IV. 第 7 次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에 관한 考察

1. 第 7 次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의 背景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개방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혁신적인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 나라 상업교육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商業教育의 目標

학교교육의 일반 목표는 교육법 제1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고, 교육 방침은 제2조에 그리고 교육 목적은 제3조에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시행되어야 하며, 실업과 상업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목적이 교육을 지향하고 기본적인 방향 제시의 표현으로써 비교적 포괄적이고, 궁극적이며,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동시에 이상적인 개념이라면, 교육목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실제적으로 교육활동이 계속되는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이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진술은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고,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로 되어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현재까지 산업 사회의 구조 분석, 인적자원이 수요

상황, 지역 사회나 학교의 실정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 없이 획일적인 교육을 과하고 있음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경제 활동과 산업 구조가 고도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 발전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직업인 양성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교육 현장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생기며, 이는 곧 상업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교육목표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일부분 개정되어야 하며, 학과가 분과되는 경우 그에 따른 교육목표도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특정한 전문적 기능인이 탄력적으로 적응하기는 어려우므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기본 자질을 길러 주는 데 교육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표 진술도 이러한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상위 목표와 성취 목표를 정하고 있다.

“상업 및 경영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며,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 (1) 정보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지닌다.
- (2)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서 장래 우수한 직업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태도를 갖는다.
- (3)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책임 의식과 태도를 갖는다.

2) 商業教育의 性格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상업 자영인 및 상업 관계직 취업자 양성을 위하여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능력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상업교육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평생직업교육기관의 하나로 파악하고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준비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교과는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능력 있는 평생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추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구성하였다.

상업교과의 내용은 교육과정 이수 후 산업 현장에 근무하면서 고등직업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보다 심화된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단계적 성취도가 이루어지도록 교과내용이 구성된다.

상업교육의 환경은 상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변화, 정보화 사회에서 인력 수요 증가 및 학생들의 진학률 증가 등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교과목을 과목군별로 나누어 학과별 교과목의 전문성을 반영한다. 한편 전문교과목은 기초이론교과, 실무기본교과, 실무심화교과의 3영역으로 나누어 단계적 성취도와 전문교과목간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한다.

따라서 상업교과의 성격은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교과 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3) 學制 編制

우리 나라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구한말 개화기에 시작되어 일제 통치시대와 광복 직후까지 중등학교 3년제, 5년제, 4년제, 6년제의 과정을 거쳐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된 초·중·고 6-3-3 제도가 현행 교육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상업계 고등학교 3년제에 대하여 상업계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반응은 현행과 같이 고등학교 3년제에 대하여 54.2%의 찬성이 지배적이었고, 전문대학 과정과 연계시켜 5년으로 하는 것에도 40.4%의 의견이 나와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¹⁸⁾ 이러한 현상은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생애 교육

으로의 연계를 희망하는 것으로써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일계 전문대학의 확충과 동일계 4년제 대학의 특전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더욱 현실성 있고 다양하게 편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적이고 개성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자가 사회에 배출되어 직무를 수행함이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직위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론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 지원자가 상당수 졸업 후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교육까지 연계시키는 계속교육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하여 상업계 고등학교 연계되는 전문대학(현재 전문대학의 동일계 야간 학과에서 일부 설치·운영되고 있음)과 4년제 대학의 상업계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의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에서의 선발방법도 대폭 개선하여 동일계열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일부 시행되고 있음) 교육내용도 동일계열 학력을 전제로 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學科 編制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상업계 고등학교의 전공학과는 제5차 교육과정의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 외에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비서과, 기타 학과가 추가되었다.

이는 고도 산업사회에서 전문화된 직무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그 목

18) 정상천 외(1992),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상업계 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41.

적이 있다. 또한 산업사회의 구조변화와 인적자원의 수급상황 및 지역사회와 학교실정에 따라 학과편제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따라서 학과의 편성은 획일적이거나 모방적이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교의 학과 운영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징이 없는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과 사회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일과의 운영, 생활기록부 양식, 평가결과의 처리 등)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편제는 학과별 특색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에서는 상업과(70.6%)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상업계 고등학교의 전공학과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모형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무자동화과와 유통경제과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신설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의 7개학과 외에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학과의 조사에서도 많은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사무자동화과(63.0%)와 유통경제과(25.3%)의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또한 1997학년도 경기도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현황에서도 표 8.과 같이 그 구성비율에 있어 상업과 46.9%, 정보처리과 31.3%, 사무자동화과 7.5%, 유통경제과 3.8%, 상업디자인과 3.6%, 관광경영과 2.5%, 경영정보과 2.3%, 회계과 1.7%, 무역과 0.4%의 순으로 나타나,²⁰⁾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무자동화과와 유통경제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허대욱(1995),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41.

20) 최호규(1997), "마케팅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4집, pp.403~404.

표 8. 경기도 상업계 고등학교 학과별 현황(1997년 3월 기준)

학과 설립	상업	정보 처리	사무 자동화	유통 경제	상업 디자인	관광 경영	경영 정보	회계	무역	계
공립	177 (35.3)	172 (34.3)	70 (14.0)	28 (5.6)	27 (5.4)	24 (4.8)	.	.	3 (0.6)	501학급 (100%)
사립	396 (54.9)	211 (29.3)	22 (3.1)	18 (2.5)	17 (2.4)	6 (0.8)	28 (3.9)	21 (2.9)	2 (0.3)	721학급 (100%)
계	573 (46.9)	383 (31.3)	92 (7.5)	46 (3.8)	44 (3.6)	30 (2.5)	28 (2.3)	21 (1.7)	5 (0.4)	1222학급 (100%)

자료 : 최호규(1997), "마케팅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4집, pp.403~404.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상업계 고등학교 학과 편성은 직업교육(전문교육), 계속교육을 지향하여 학과, 유형, 과목 선택제를 포함한 다양하고 탄력적 학과 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과제에 따른 학과별 특성을 높이고, 학과의 편제를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며, 전문 교과와 교육의 강화를 필요로 있다.

특히 학과에 대해서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해서 그 신설이나 학과 명칭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상업교육을 지향하면서 학과설치의 시비나 그 명칭의 본질 등에 대해서는 장래 전망을 근거로 하는 조속한 사전 준비와 관계자의 공통 이해를 결친 의사 결정이 중요시되며, 선진국의 예와 같이 다가오는 미래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처리와 판매유통 등 미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학과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외국의 상업계 고등학교 학과편제

대 만	종합상업과, 회계통계과, 문서사무과, 광고설계과
일 본	상업경제과, 경리과, 사무과, 정보처리과, 영업과, 무역과, 국제경제과
스웨덴	경제과, 관리과, 유통판매과, 회계과

자료 : 교육부 과학교육과, 고교 직업과정 확충계획, 1992, p.98.

5) 專門教科 編制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산업, 기술 및 정보를 생산, 유통 관리 하는 일이 사회 발전에 관건이 되며, 창의적 두뇌와 산업과 과학 기술 개발이 산업 발달에 바탕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1세기 산업과 기술 및 정보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상업교과 교육을 통한 교양 교육을 튼튼히 하고, 일의 세계, 산업과 과학, 기술 세계를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산업 기술과 정보처리 능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교과 내용의 선정과 집필이 필요하다.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목의 내용을 보면 산업과 과학, 기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탐구 기능, 학습 기능에 관한 교육 내용을 교육 과정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보게 하는 경험과 실천을 중시하는 교육이 무시되고 있다.

교육과정 중 특히 각 교과목의 구성은 학생의 수준과 사회적 요구 및 교과목 표와 학습환경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교과목은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시켜야 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거나 각 전문교과목간의 연계성 및 직업적 활용성과 전이성이 낮을 경우에는 전문교과로서의 타당성을 잃게 된다. 물론 교육과정은 미래 지향적이지만 현재의 경제, 사회의 발전 속도와 지역 사회의 여건 및 욕구에 부응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영의 국제화와 기업의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여 현대적인 경영관리 기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및 방법을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영의 전문화, 국제화에 대처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 이용 등 정보처리 기능을 습득시키며 근대적 판매기법을 체득하도록 교육과정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교과목의 과목 수는 제5차 교육과정 때의 22개의 과목에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30개 과목으로 늘어났다. 현행보다 더 많은 분과편제를 하다보니 전문교과목 수가 많아지고 각 교과목간의 교육과정 편제에도 상호 특색이 없이 유사하거나 상호 보완하는 선에서 편제되어 있는 형태이다. 교과목간의 신축성,

유이성, 목표 달성, 수용성, 참신성 등을 근거로 하여, 종전의 전문교과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게 신설, 폐지하여 교과목을 설정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로써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구성 원칙으로 정하였다.

- (1) 현재의 상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담당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2) 교과서 수를 축소하고 교육내용은 정보화 교육이 중심을 이루도록 한다.
- (3)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교과서가 되도록 '이론과 실습'의 통합교과로 구성하고, 기초이론교과 → 실무기본교과 → 실무심화교과로 연계성을 높이도록 한다.

2. 第 7 次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의 內容

상업교육의 환경은 21세기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말미암아 상업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21세기에 걸맞은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각론은 교육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시켜 한국교육개발원이 1996년도에 개발·확정된 총론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각론 개발을 위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미래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상업계 고등학교 과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개혁이 추구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다양화시킨 교육, 자율과 책임성을 강조한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정보화 교육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둘째,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은 진학을 증가, 상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변화 및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력 수요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상업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업계 고등학교 전

문교과목을 과목군 별로 나누어 각 과목군에 해당되는 전문교과목을 돕으로써 각 학과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개발되어 있다.

즉 표 10.과 같이 상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목을 계열별 필수과목(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을 제외하고 경영정보 및 관광경영 과목군, 회계정보 과목군, 유통경영 및 통상정보 과목군, 비서 및 사무자동화 과목군, 시각디자인 과목군, 정보처리 과목군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어 있다.

표 10. 제7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목 편제

교과 과목군	기초이론교과	실무기본교과	실무심화교과
경영정보 및 관광경영 과목군	경 영 대 요 상 업 법 규		상업 계산 실무 경 영 실 무 관광 경영 실무
회계정보 과목군		기 업 회 계 원 가 회 계 세 무 회 계	회 계 실 무
유통경영 및 통상정보 과목군	국 제 경 영 마 케 팅 광 고 일 반 유통 관리일반	국 제 상 무	무 역 영 어 유통 정보 실무
비서 및 사무자동화 과목군	비 서 일 반 사무자동화일반		비 서 실 무 문 서 실 무 사무자동화실무
시각 디자인 과목군	시각디자인 일반	사 진 컴퓨터 그래픽 그래픽 디자인	시각디자인실무
정보처리 과목군		자 료 처 리	전자 계산 실무 프로그래밍실무
상업계열 필수교과목	상 업 경 제 회 계 원 리 컴 퓨 터 일 반		

자료 : 교육부, 상업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1997, pp.30~86.

셋째, 상업계 고등학교 각 학과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기초이론교과, 실무기본교과, 실무심화교과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졌다. 기초이론교과는 전문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기초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배우는 교과로서, 여기에는 상업계열 필수교과목인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을 비롯해서 경영대요, 상업법규, 마케팅, 광고일반, 유통관리일반, 시각디자인일반, 국제경영, 비서일반, 사무자동화일반이 속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무기본교과는 각론적 성격인 실무의 기초를 배우는 교과로서 실무심화교과의 사전 단계에 속하는 것이며 기초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학습하는 교과이다. 여기에는 기업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국제상무, 자료처리, 사진, 그래픽디자인, 컴퓨터그래픽이 속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무심화교과는 전공영역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로서 실무기본교과인 내용보다는 심화된 내용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상업계산실무, 회계실무, 무역영어, 전자계산실무, 프로그래밍실무, 시각디자인실무, 관광경영실무, 사무자동화실무, 유통정보실무, 경영실무, 문서실무, 비서실무가 속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 경영정보 및 관광경영 과목군에서의 '상업계산실무'는 실무 심화 교과목으로써 제6차 교육과정의 '상업계산'과 '상업실무' 그리고 '상업일반실습'을 통합한 과목이다. 그러므로 '상업계산'의 기초 이론과 이에 따른 실무적 실기 습득을 예제 중심으로 실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영실무'는 제6차 교육과정의 '상업실무'와 '상업일반실습'에서 경영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구성하였고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실습을 통한 실제 경영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광고일반'은 기초이론과목의 성격을 가지므로 경영관리에 있어서의 광고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관광경영실무'는 제6차 교육과정의 '관광경영실습'을 개칭한 과목으로써, 관광경영에 필요한 관리업무에 관한 실무적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사례별 실습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회계정보 과목군에서의 회계원리는 제6차 교육과정의 상업부기를 개칭

한 과목으로써 회계원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전문교과목의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처리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계실무'에서는 회계정보 과목군에 속하는 전문교과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실무심화교과로서의 성격이 반영되도록 실무기본교과목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유통경영 및 통상정보 과목군에서의 '국제경영'은 제6차 교육과정 중 '국제경제'를 개칭한 것으로써 국제경영 관련내용을 강화시켜 기업의 국제화에 따른 경영의 관리와 전략에 관한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무역영어'는 제6차 교육과정의 '상업영어'를 통상 관련학과의 특성화 과목으로 개칭한 것으로써 무역업무와 관련된 통신영어를 사례별로 나누어 내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상무'는 제6차 교육과정의 '무역업무'와 '무역실습'을 통상 관련학과의 특성화 과목으로 통합·개칭한 것으로써 무역업무에 관한 내용을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결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사례와 국제 상거래 관습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일곱째, 비서 및 사무자동화 과목군의 '비서실무'는 제6차 교육과정의 '비서실무'와 '비서실습'을 통합 개칭한 과목으로써 실무심화교과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서업무에 관한 심화된 실무적 지식을 배우도록 하였고 사례별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다만 기초이론교과인 '비서일반'과는 중복을 피하고 이와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사무자동화실무'는 실무심화교과에 속하는 것으로써, 기초이론교과인 '사무자동화일반'과 연계되도록 하였고 사무자동화업무에 관련된 실무지식을 배우도록 하여 사례별 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다만 '문서실무'의 내용과는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여덟째, 시각디자인 과목군의 '사진'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신설과목으로써 실무기본 교과목에 속하므로 기초이론과목인 시각디자인일반을 학습한 후에 시각디자인실무에 필요한 인쇄, 상업미술 및 사진에 관한 실무기본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시각디자인실무'는 제6차 교육과정의 '상업디자인실습 I, II'를 통합하여 개칭한 것으로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실무적 사례를 중심으로 실습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째, 정보처리 과목군에서의 '자료처리'는 제6차 교육과정의 '정보처리', '자료처리실습', '경영통계'를 통합시킨 교과이므로, 컴퓨터에 의한 경영에 관한 정보 자료를 처리하는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전자계산실무', '프로그래밍실무'와 연계되어 내용 중복을 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프로그래밍실무'는 제6차 교육과정의 '프로그래밍Ⅱ'와 '프로그래밍Ⅱ실습'을 통합한 교과인 실무심화교과이므로 실제 예제를 중심으로 실기를 습득하여 경영에 관한 실무적 사례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유통정보실무'는 실무심화교과로서 유통경영 및 통상정보 과목군의 특성화 성격을 가지므로 유통업무에 관한 정보관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유통경영 정보의 사례별 실습을 배우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내용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내용

교 과 명	교 과 내 용
상 업 경 제	1. 경제활동과 상업 2. 유통경제 3. 금융 4. 정보통신 5. 국제경영과 국제경제
회 계 원 리	1. 회계의 기초 2. 자산·부채·자본의 회계원리 3.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4. 결산과 재무제표 5. 전표회계와 회계자료의 전산처리
컴퓨터 일반	1. 현대사회와 컴퓨터 2. 컴퓨터 시스템 3. 컴퓨터의 원리 4. 컴퓨터의 활용 5. 프로그래밍 6. 컴퓨터의 이용 기술
경 영 대 요	1. 기업과 경영환경 2. 경영관리 3. 기업의 부문별 활동 4. 경영의 현대화
상 업 법 규	1. 경제생활과 법 2. 권리와 의무 3. 물권 4. 채권 5. 영업 활동에 관한 법규 6. 회사 7. 유가증권 8. 기업분쟁과 해결

계속

교 과 명	교 과 내 용
상업계산실무	1. 상업계산실무 실습의 개요 2. 계산 용구에 의한 계산 3. 매매에 관한 계산 4. 비율과 금리계산 5. 보험료에 관한 계산 6.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 7. 급여 및 세금계산 8. 무역에 관한 계산
경 영 실 무	1. 경영실무의 학습 2. 총무업무 3. 경리업무 4. 세무업무 5. 매매업무 6. 금융업무 7. 직장예절
기 업 회 계	1. 기업회계의 기초 2. 기업의 재무상태 3. 기업의 경영성과 4. 재무제표 5. 본·지점 합병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원 가 회 계	1. 원가회계의 기초 2. 원가계산 3. 개별원가계산 4. 종합원가계산 5.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6. 원가정보의 이용과 전산화
세 무 회 계	1. 세무회계의 기초 2. 소득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5. 기타의 조세 6. 세무회계 정보의 이용과 전산화
회 계 실 무	1. 회계의 기초실무 2. 장부와 전표의 실무 3. 재무제표 작성실무 4. 본·지점 합병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실무 5. 원가회계실무 6. 세무회계실무 7. 회계정보의 이용과 전산화 실무 8. 회계감사
국 제 경 영	1. 국제경영의 뜻과 특징 2. 국제경영의 환경 3. 국제경영의 전략 4. 해외투자와 다국적 기업 5. 외국환관리
무 역 영 어	1. 무역통신문의 구성과 국제통신 2. 거래관계의 개설 3. 거래관계의 성립 4. 화환신용장 5. 선적과 운송서류 6. 결제 7. 클레임과 해결
국 제 상 무	1. 무역업무와 무역자동화 2. 무역거래 3. 거래조건과 계약 체결 4. 수출실무 5. 수입실무
자 료 처 리	1. 자료처리의 개요 2.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3. 스프레드시트 4. 통계 패키지 5. 컴퓨터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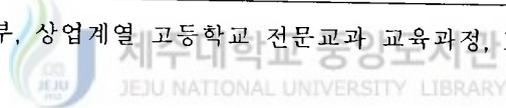
계속

교과명	교과내용
전자계산실무	1. 소프트웨어의 개요 2. 데이터구조와 파일의 편성 3.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 4. 판매관리의 전산화 5.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6. 컴퓨터 보안과 윤리
프로그래밍실무	1. 프로그래밍의 개요 2. 프로그래밍의 기법 3. X언어의 개요 4. 프로그래밍의 실제 5. 파일처리 프로그램
시각디자인일반	1. 시각디자인의 개요 2. 시각디자인의 역사 3. 시각디자인의 확장과 영향 4. 시각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원리 5. 시각디자인의 과정과 관리
사 진	1. 사진의 이해 2. 도구와 장비 3. 촬영 4. 현상과 인화 5. 포트폴리오와 액자 6. 사진의 활용 7. 디지털 사진
시각디자인실무	1. 편집디자인 2. 광고디자인 3. 포장디자인 4. 영상디자인 5. 인터랙티브 디자인 6.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1. 평면 조형 2. 입체 조형 3. 관찰과 표현 4. 일러스트레이션 5. 타이포 그래픽 6. 디자인과 전달 7. 그래픽 디자인의 실제
컴퓨터그래픽	1. 컴퓨터그래픽의 이해 2. 컴퓨터그래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3. 컴퓨터그래픽과 시각언어 4.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의 실제
관광경영실무	1. 관광경영과 정보 2. 여행전산업무 3. 호텔전산업무
비서일반	1. 비서의 개요 2. 직업과 윤리 3. 비서와 인간관계 4. 정보화 사회와 비서 5. 비서와 자기계발
비서실무	1. 비서예절 2. 전화업무 3. 손님응대 4. 보좌업무 5. 총무업무

계속

교 과 명	교 과 내 용
사무자동화일반	1. 사무자동화의 개요 2. 워드프로세서 3. 스프레드시트 4. 데이터베이스 5. 프리젠테이션 6. 정보통신
사무자동화실무	1. 사무자동화 실습 2. 정보통신 실습 3. 종합 실습
문 서 실 무	1. 문서작성의 기초 2. 문서작성 3. 문서받기와 보내기 4. 문서정리와 보관
마 케 팅	1. 현대 마케팅의 소비자 2. 마케팅 기회의 발견과 분석 3. 소비자 행동의 이해 4. 제품계획 5. 가격 6. 유통경로 7. 촉진 8. 국제 마케팅 9. 특수 마케팅
광 고 일 반	1. 광고의 이해 2. 광고와 마케팅 3. 광고관리 4. 광고 크리에이팅 5. 광고매체 6. 특수광고
유통관리일반	1. 유통의 역할과 유통산업 2. 유통활동과 유통경로 3. 유통활동과 보조기관 4. 물적유통관리 5. 유통활동과 유통비용 6. 유통활동과 경제발전
유통정보실무	1. 유통정보 2. 소비자정보 3. 기업 내 정보 4. 유통경로상의 정보 5. 유통정보시스템 6. 유통정보기기의 활용

자료 : 교육부, 상업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1997, pp.30~86.



V. 第7次 商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效率性 提高 方案

1. 商業教育의 認識 轉換

우리 나라의 상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전공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학생들에게 먼저 그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에는 대단히 약하다. 그것은 비단 상업계 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학생이 그 분야의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도록 가르치는 데에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진학에 대한 희망을 무시하고서 일방적인 상업교육에 대한 강요만으로는 결코 상업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열린 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또 기술을 배워 취업도 할 수 있다는 열린교육의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이 기술을 배워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학생과 학교와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업교육의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이러한 변화 추세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繼續教育의 機會賦與

상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이 기피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 진학의 길도 막혀 있고 계속교육의 기회도 사실상 차단되어 있으며, 승진과 대우에 있어서도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상업계 고등학교는 장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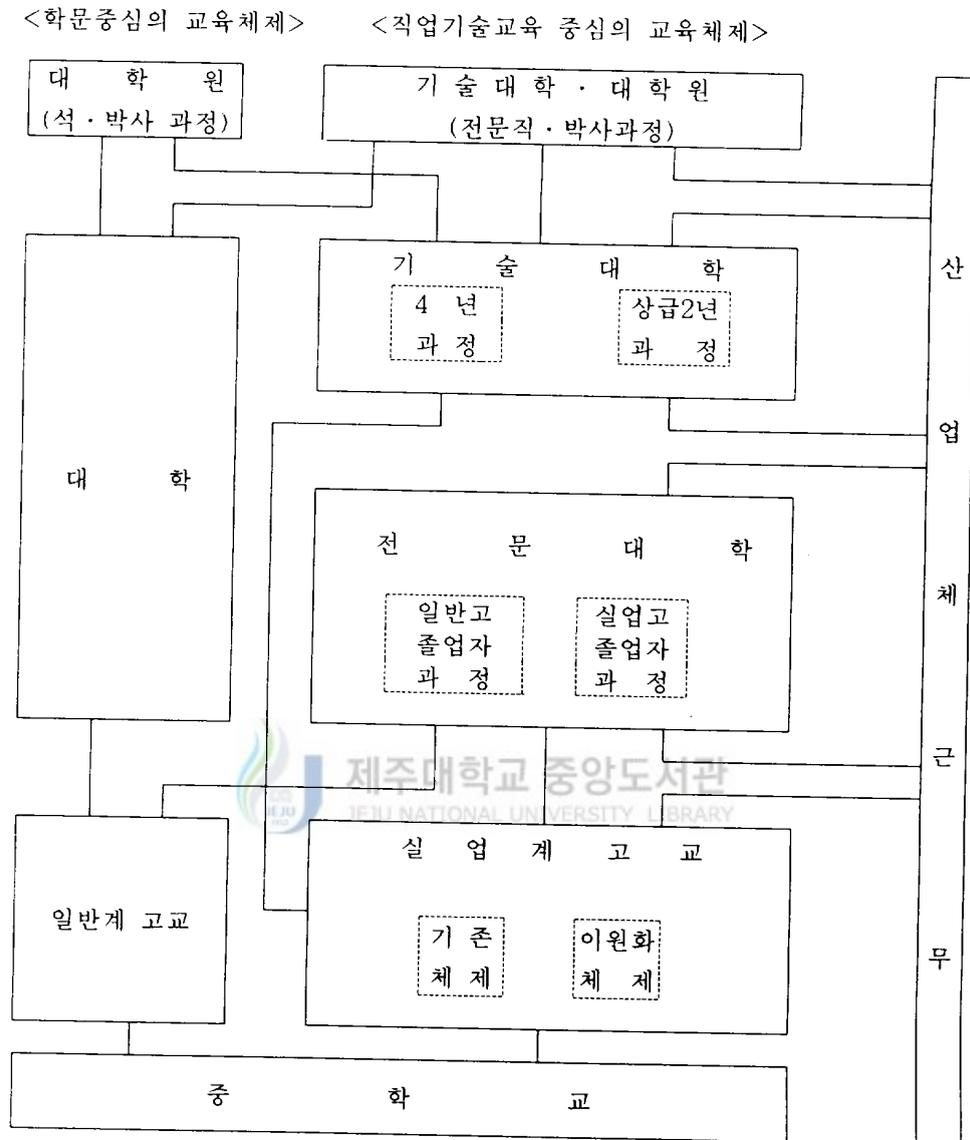
의 진로가 막혀 버리는 막다른 골목의 학교로 학제상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진학이 선호되고, 직업교육이 경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이해된다.

일반계 고등학교야말로 일부 재능이 있는 소수집단만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로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가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로개척을 위하여 진학하는 주류의 학교(main track)로 교육체제가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상업계 고등학교는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연계되어 계속교육이 가능한 직업교육체제속에서 기초적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업계 고등학교는 더 이상 종국교육기관이 아니며, 현대 산업 사회의 계속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대학(institute of technology)은 학문 위주가 아니고 산업 현장의 기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고등교육 단계의 계속교육기관으로써 산학협동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대학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현장기술인을 위한 대학 상급과정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현장기능인을 위한 4년 과정, 그리고 석·박사의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 → 전문대학 → 기술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그림 2. 평생교육과 연계된 학제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기술교육의 교육과정 모형연구, 1996, p.96.

3. 專門教科의 效率的 運營 및 學校名稱의 變更

상업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구체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편이 있어야 한다.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목표가 더 이상 좁은 분야의 숙련된 기능 인력 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력 양성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편제에 있어서도 '이론과 실습'의 교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앞의 학과편제에 반영된 신설학과에 반영될 교과목으로써 정보통신, 재무관리, 유통정보, 무역자동화, 외국환실무, 직장예절, 영어회화, 국제물류, 시장조사, 인터넷, 키보딩, 컴퓨터 이용 설계 시스템(Computer Aided Design System : CAD) 등이 교과편제에 전공선택과목으로 반영하여 기존 전공선택 과목과의 통폐합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전문교과목의 선택 폭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의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직업교육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업계 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상업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획일적인 학교명칭을 탈피하여 예컨대 '○○경영고등학교', '○○통상고등학교', '○○관광경영(또는 호텔경영)고등학교', '○○시각디자인고등학교', '○○유통정보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이미지 전환과 상업교육의 보다 전문화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암시하는 교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教育課程의 現場 適應性 提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체 현장 실습의 기간이 짧고, 프로그램도 미비하고 지도 감독 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과정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의 시기와 기간, 실습분야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실습 대상 업체 선정의 어려움, 학생 개별적으로 실습 시기 및 기간이 다른 데서 오는 실습 후 귀교 학생 지도 문제 등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학년 단계에서는 현장 실습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탄력적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신직업교육체제안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1학년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과정에 의하여 교양 교육만 받고, 2학년에서는 전문 교과와 이론을 배우고, 3학년에서는 실습 교육만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 모른다. 교양교육, 전문이론교육, 전문실기실습교육이 조화로운 비율로 각 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이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5. 資格檢定制度의 改編

우리 나라에서 사무기능 검정제도가 시행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설학원이 개설되고,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능급수 취득을 위하여 학원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관련기업체에서는 취업추천 구비서류에 주산, 부기, 타자 등의 자격증 취득자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원수강이 본격화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초래하였다.

현행 사무기능 검정제도는 학교의 내신성적을 도외시하고 외부 검정단체의 평가를 더욱 중요시하는 비교육적 측면 때문에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행기관의 기능자격검정이 세부적인 단순기능만을 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취득만으로는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하며, 검정의 종목과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시기와 사무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검정과목의 종류나 출제내용이 교육과정과 괴리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개정된 새 교육과정의 과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격검정은 대부분 주산, 부기,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타자가 워드프로세서로 바뀌었고, 주산과 부기는 시험회수가 축소된 반면 워드프로세서와 정보처리기능사는 정보화의 시대에 걸맞게 확대되었다.

자격제도를 직업교육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우선 직무 분석을 통하여 현장 직무를 반영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각급 상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이수자에게 원칙적으로 무시험 검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6. 敎員資格表示制度의 改善

현행 교원자격표시제는 '상업'으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실제 일선학교에서의 컴퓨터 관련 교과목의 경우에는 '전자계산' 자격표시의 교원이나 또는 부전공 '전자계산' 자격표시의 교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상업계 고등학교 상업관련 교과목의 경우에는 '전자계산' 자격표시의 교원이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상업계 고등학교 교원간의 갈등과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앞으로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서의 상업교육은 모든 교과목에 정보화 교육이 체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컴퓨터 관련 교과목이 모든 상업교과목 내용구성에 반영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로써 제7차 교육과정의 모든 전문교과목은 컴퓨터 관련 교과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교과담당 교원의 자격표시도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원자격표시는 '경영'으로 표시하여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업 및 경영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반영하고,

또 컴퓨터 관련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정보처리'라는 명시를 병기함으로써 교원 자격표시를 '경영(정보처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7. 教科書開發體制의 改善

현행 교과서개발체제는 교재 채택 부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검인정교과서개발체제를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국정교과서개발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현행 교과서체제는 물론 교과서의 규격과 구성 요소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의 학습자는 문자보다는 사진, 삽화를 익숙하게 접하는 세대임을 고려할 때, 현행 교과서의 체계는 그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개발에 있어서는 집필자의 자유로운 집필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원의 자율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안 자체를 인정도서(각 시·도 소재 교육청 인정)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개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인정교과서 개발이 있어서는 전문교과목 교과서의 내용 체계에 정보화 교육을 강화시키고 학습자의 자율학습을 돕기 위해서 교과서 출판업자로 하여금 CD롬이나 시청각 교재를 병행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과서는 '이론과 실습'의 통합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실습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습과 학습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지질과 색도는 상호간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질을 높은 색도(3도 이상)를 사용함으로써 사진과 삽화에 의한 내용 구성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흥미 유발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교과서 규격에 있어서도 신규격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교과서 휴대 및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본 연구는 상업교육과 관련한 근본적 개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교육과정의 변화까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효율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면에서는 문헌자료, 특히 매스컴에 나타난 상업교육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참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상업교육의 변화추세를 상업교육 개념의 변화, 수요자의 요구변화, 산업계의 요구변화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교수요목기로부터 시작해서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제정방침, 학과별 목표, 전문교과목 편제 및 단위배당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 보았고, 제5장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성 방안을 제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상업교육은 커다란 전환점에 와 있다. 상업교육의 중심이 되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국민소득의 증가와 고학력 중시 풍토 속에서 진학 희망자들로부터 인기를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에 관한 내용으로서 고등학교의 상업교육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보화시대에서의 상업교육에 걸맞는 전문교과의 기본지식과 기능 습득 및 컴퓨터 관련 교육을 보완하여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미래화에 발맞추어야 한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을 특성화시켜 변경시켜야 하며, 그 중에서도 '○○경영정보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어야 하고, 학교명칭 변경과 더불어 '상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가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여학생 덕분이다. 상업계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의 절대 다수는 여학생이다. 따라서 남자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남녀 공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진학 및 진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사의 진로지도시 '학생성적', '학생적성', '장래성'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최근의 인턴사원제를 상업계 고등학교생에게도 실시해야 하며, 상업계 고등학교생의 동일계 전문대학 및 동일계 대학 진학시 '가산점 부여'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업계 고등학교생만을 대상으로 수학능력고사의 전국석차를 결정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습교육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5~40명 정도가 적당하며, 또한 상업계 고등학교의 성격을 기초직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여 교과과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처리과목군, 비서 및 사무자동화과목군, 시각디자인과목군은 실습을 대폭 강화하여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그리고 경영정보 및 관광경영과목군, 회계정보과목군, 유통경영 및 통상정보과목군은 기초기능습득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실습수업의 형태는 개인실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기평가는 과정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실습 시기를 11월로 변경하여 실습평가도 관련교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학과 및 교과편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 표시된 상업계 고등학교의 9개학과(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통상정보과, 유통경영과, 정보처리과, 시각디자인과, 비서과, 사무자동화과, 관광경영과)의 구분이 비교적 적정하며, 이외에도 광고디자인과, 판매관리과, 금융보험과 등의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업계 전문교과목을 계열별로 필수과목(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과 6개 교과목군(경영정보 및 관광경영과목군, 회계정보과목군, 유통정보과목군, 비서 및 사무자동화과목군, 시각디자인과목군, 정보처리과목군)으로 분류하고 기초이론교과 → 실무기본교과 → 실무심화교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단계적 성취도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자격증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기능검정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나 현재 상공회의소나 기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능검정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방안중 전문교과목 이수자에 대해서는 특정과목에 한하여 평가를 면제해 줌으로써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양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사는 반드시 정규과정을 통해서 양성되어야 하며, 교사의 신규자격증 수여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여 교과전담교사의 자격증 표시를 경영(정보처리), 통상(유통), 비서(사무자동화)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과서 수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재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내용이 대체로 어려우므로 내용을 쉽게 조정해야하며, 내용 또한 문자보다는 삽화나 사진으로 대신하고, 교과서 크기는 16절(4×6배판) 176mm×250mm을, 색도는 3색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獻

< 單行本 >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Ⅲ),” 「제4차보고서」.
- 교육개혁추진단(1996),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
- 교육부(1995),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정 해설,” -상업계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1996), “교육통계연보,”.
- 김성수·이용한(1996), “교육개혁실천과 실업교육의 진로,” 「직업교육관련학회 및 교장회공동세미나 자료집」.
- 김재식(1991), “상업교사 양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업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 _____(1997), “상업교육의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3집, 한국상업교육학회.
- 김창호(1997), “상업교과교육의 정보기술도입 문제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4집, 한국상업교육학회.
- 노종희(1993), “중등교원양성과 자격제도의 재검토,” 「교육진흥」, 제6권 제1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신황호(1996), “교육개혁과 상업교육의 진로,” 「분필 없는 교실-하계세미나-」, 한국상업교육연구회,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
- _____(1997), “신직업교육체제와 상업교육의 진로,” 「한·일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문집」, 한국상업교육학회.
- _____ (1997), “제7차 상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각론개정연구시안,”
인하대학교 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 양광수(1997), “일본의 상업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의 상경교육,” 「상교논총」, 제
14집, 한국상업교육학회.
- 이무근(1996), “상업협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관한연구,” 직업교육학회.
- 이용호(1997), “상업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상교논총」, 제14집,
한국상업교육학회.
- 장석민(1996), “기술교육의 교육과정 모형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상천 외(1992),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상업계 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한
국교육개발원.
- 정철영(1997),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방향,” 「직업교육연구」, 제16권 제
1호, 한국직업교육학회.
- 최종열·김진욱(1996), “정보화사회에서의 상업교육,” 「사대논문집」, 제32집, 부
산대학교 사범대학.
- 최호규(1997), “상업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3집, 한국
상업교육학회.
- _____ (1997), “마케팅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
14집, 한국상업교육학회.
- 7차교육과정 심의자료(1996), “교육과정 2000총론초안(Ⅰ)(Ⅱ),” 한국교육개발원.

< 論 文 >

- 권현숙(1993), “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교(1995), “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식(1987), “상업계 고등학교 무역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분석.”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문경심(1994),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편제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찬길(1994), “우리나라 상업교육의 태동 및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영자(1997), “상업계 고등학교의 상업과 교육과정 변천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의영(1992), “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규백(1994),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의 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성덕(1994),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재완(1993), “상업계 고등학교 상업교육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대욱(1995),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其 他 >

- 국민일보, “상고도 시대변신/취업난 대처 다양한 첨단공부,” 1996년 7월 1일.
- 한겨레신문, “상업계 고교 취직 힘드네,” 1996년 10월 21일.
- 한국교육신문, “직업교육 재검토하자,” 1992년 9월 23일.
- 한국일보, “실업고생 대학진학 붐,” 1995년 8월 24일.

II. 國外文獻

- 武市春男・平井潔(1976), 「商業教育論」, 東京: 國元書房.
- A. F. Schrag, & R. P. Poland(1987), *A system for teaching business education*, New York : McGraw-hill.
- A. J. Pautler(1990), *Vocational education in the 1990s : Major issues*. Ann Arbor, Michigan : Prakken Publications, Inc.
- C. A. Herrick(1904), *The meaning and practice of commercial edtcation*, p.6, quoted in Nanassy L. C. et al.(1979),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Indiana : Bobbs-Merrill Co. Inc., p.2.
- C. R. Finch, & J. R. Crunkilton(1989), *Curriculum development i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Planing, content, and implementation*. Needham Heights, Massachusetts : Allyn and Bacon, Inc.
- F. G. Nichols(1933), *Commercial education in high school*, quoted in Nanassy L. C. et al.(1979),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Indiana : Bobbs-Merrill Co. Inc., p.2.
- H. C. Dent(1992), *Education is England and Wales*, London : Hodder and Stoughton.
- J. Rifkin(1994), *The End of Work*, Minumsa Publishing Co.
- L. C. Nanassy., D. R. Malsbary., & H. A. Tonne(1979),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Indiana : Bobbs-merrill Co. Inc., p.2.
- L. C. Nanassy, Louis(1970),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The Bobbs-Nerrill Compant Inc.
- L. C. Robert(1993), *Training and Development : Guide to Human Resoyrce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 L. V. Douglas(1968), *Business Education*, The Center of Education, Inc., New York.

-
- M. Bob(1991), *A guide to the National Curriculum*, Oxford University Press.
- M. Carnoy, & M. L. Herry(1992), *Schooling and Work in the Democratic State*, Stanford University Press.
- P. S. Lomax(1928), *Commercial teaching problems*, New York : Prentice-Hall, p.7, quoted in nanassy, L. C. et al.(1979), *Principles and Trends in Business Education*, Indiana : Bobbs-Merrill Co. Inc., p.2.
- P. T. Drucker(1969), 「단절의 시대(*The age of discontinuity*)」, 서남원 역 (1976).
- U. S. Department of Education(1995), *The New american high schools : Preparing students for college and careers*. McGraw-hill.
- W. C. James(1993), *Curriculum Development in Education for Business*, National Business Education Associaton.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Curriculum of Business High School

Lee, Jong-Wha

Commerc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eong-C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onsiderable efficiency project to fulfill the purport of the 7th curriculum revision of business high school by analyzing from the fundamental concept change to the practical curriculum change related to business education in a macroscopic view point.

Business high school is faced with stagnation or decline age du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income and national consciousness change etc. As these circumstances are result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change it is difficult for business high school by themselves to change the environment. How to solve this problem is that business high school should be adapted to these circumstances.

The coming 21th century will be the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characterized as the open-ended, globalized and pluralized society. In the process of this change, I suggested the efficiency project of the the 7th curriculum of business high school that will be enforced for the future in order to overcome the present difficulty of business education in Korea.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